

2024년 언약갱신의 헌신고백 [웨슬리 언약예배에 기초한 고백문]

[목사의 선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성별된 새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의 증보자가 되시며 그 자신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으며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의 은혜를 확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의 성령의 빛으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은 우리가 신앙과 실천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한 곳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 약속의 모든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새롭게 드립시다.

[회중의 고백]

오, 우리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 곳에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당신의 자비로 채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을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속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의 친교와 교회의 증거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셨으며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의 기쁨 속에 참 기쁨의 영이 되셨고 우리의 수고 속에 넉넉한 지팡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당신께로부터 돌아섰을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오래 참으심과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목사의 선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분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서로 서로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중의 언약갱신의 고백 / Covenant Renewal] (회중은 모두 일어선다)

오 주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스러운 계약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복종의 명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고 찾는 것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이나 모든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저에게 모든 욕망을 비워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을 갖게 하옵시고, 모든 악한 것은 갖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기쁨과 뜻에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이제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계약은 천국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목사의 선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해야 할 마땅한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회중의 응답]

오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옳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천사장들과 함께 하늘에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다함께 드리는 송영]

거룩! 거룩! 거룩! 만주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이 당신의 영광으로 찬미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